

세 개의 잔

제 마음 속에 임하는 간결한 환상은, 고급 포도주가 담겨 있고 측면엔 히브리 문자들이 새겨져 있는 세 개의 잔입니다. 이 세 잔은 사도 행전 2장의 세 부분을 나타냅니다. 행 2장은 저희가 예루살렘에 공동체 (아하발 예슈아 Ahavat Yeshua; 예슈아의 사랑)를 세워나가는 데에 대한 틀, 모형, 그리고 양식이 되어 줍니다.

첫째 잔, 그러니까 행 2장의 첫 부분은 1 절에서 13 절까지입니다. 여기 나타난 포도주는 기도와 찬양의 시간 중에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몇몇 지나가는 이들에겐 의아해 보였고, 심지어 그들이 포도주에 취한 이단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13 절). 허나 이 성령과 불의 세례는 공동체 내에서나, 전세계를 향한 그들의 사명에 있어서나 다가올 모든 것의 근원이었습니다.

둘째 잔, 그러니까 행 2장의 둘째 부분은 14 절로부터 40 절까지입니다. 여기 나타난 포도주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예언적 은사들, 예슈아의 죽음과 부활, 회개의 필요, 거룩함과 복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대면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사람들을 떨게 만들 뿐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공황로 충만케 합니다.

셋째 잔은 행 2장의 41 절부터 47 절까지입니다. 이 포도주는 교제와 공동체입니다. 초대 성도들은 함께 기도와 가르침으로 영적 삶을 나누고, 재정, 음식, 손 대접 (hospitality)을 통해 물질의 삶도 나눴습니다. 그들은 은혜와 일체감 속에, 한 마음으로 연합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 잔을 통해 구원으로 이끌렸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님과 초자연적 조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담대한 말씀 선포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의 관계가 마음에 와 닿아, 공동체의 인원 수가 날로 더해졌습니다.

이 세 잔 모두엔 유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잔이 의미하는 성령의 부으심은 '샤부옴 Shavuot'이라는 유대 절기-칠칠절, 기독교 교회엔 오순절로 많이 알려짐-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절기는 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와 같은 때이며, 시내 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짜와 일치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시편과 예언서 말씀들을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맞선 것은 외부인들이 아니라,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는 청중들을 “유대인 동무들 Fellow Jews (14),” “이스라엘 사람들 (22),” “형제들 (29)”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생활을 보면, 우리는 초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매일 드나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46 절). 그들은 동족들과 함께 살면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도시에 사는 이들과 더불어 은혜를 누렸습니다 (47 절).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목표- 성령님의 초자연적 임재, 예슈아의 이름을 강력히 전함, 그리고 공동체적 나눔의 삶 -를 가지고, 그 세 가지를 신앙의 유대 역사적 배경에서 품을 때,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로서 받은 패턴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와 예슈아

일전의 칼럼 (http://revive-israel.org/korean_articles/2007/Apr_07_Yahweh%20or%20Yehowah.pdf)에서, 저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어원적 의미를 설명하며 그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어야 하며, 거기에 어떤 계시가 담겨 있는지를 논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슈아라는 이름 사이의 연관성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1. **능력** □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우리 조상들이 YHVH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2. **구체적 Non-generic** □ 이 능력은 주, 하나님, 아도나이, 하셈 (그 이름)과 같은 일반적 이름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고유명사에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3. **미지적 Unkown** □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발음을 아예 금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선포할 때, 그에 따른 능력과 권세가 부족합니다.
4. **주권** □ 유대 공동체가 YHVH 라는 이름의 발음을 “잊어버린”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황을 만드시려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5. **예슈아 속의 여호와** □ 예슈아라는 이름은 여호슈아의 간축형이며, 여호슈아는 여호와 요시아 (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문장을 줄인 것입니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슈아 안에 있습니다.
6. **예슈아를 말하면 여호와를 말하는 것** □ 그러므로 우리가 예슈아의 이름을 말하면,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것이요 또한 그 이상입니다. 예슈아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여호와라는 놀라운 이름도 발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7. **다른 이름은 없음** □ 역사의 현 시점에서, 예슈아의 이름을 말하는 것 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 행 4:12 에 대한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8. **이름 없인 능력 없음** □ 예슈아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애초에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능력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9. **동일한 능력** □ 그러나 우리가 예슈아의 이름을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면, 우리는 조상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때 누렸던 권세와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10. **연속성** □ 예슈아라는 이름은 우리 조상 세대의 여호와와 이름을 우리 세대에 이어주는 연속성입니다.
11. **동일한 태도** □ 그러므로 예슈아라는 이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접근, 존중은 조상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대했던 그것들과 같아야 합니다.
12. **메시아닉 은사** □ 메시아닉 유대 운동에 속한 우리들은 이스라엘과 전세계 메시아의 몸 가운데, 예슈아의 이름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단지 원래의 발음만이 아니라 그 이름의 본래 능력과 권세를 말입니다. 예슈아의 이름에는 여호와와 이름이 있고, 그 속엔 모든 영적 계시와 임재, 그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